기획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실패한 요인

혁명좌절시킨 진보적 개혁

Ⅰ. 머리말

Karl Marx는 그의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하나의 사회제도로써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과 계급간 갈등으로 필연적으로 붕괴되며 사회주의가 역사의 진보과정에서 도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정확하다면, 19세기 후반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실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Marx의 이론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하나의 정치체제로 성장,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사회 과학자들은 이를 미국사회의 예외적인 특성("American Exceptional-ism")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 시대에 미국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모순과 경제적 불평등에 항변하여 1870년대에 노동조합의 결성과 농민-노동자 연대투쟁으로부터 1890년대 인민당(Populist Party)의 활동,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30년대의 경제불황 시기에는 공산주의 운동이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좌파 혹은 급진적 사상의 대두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은 급격히 쇠퇴를 겪었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였다.

미국 사회주의의 실패요인으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정치, 경제적 보수성, 노동조합 단체간의 사상과 정책상의 대립,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단체의 강력한 연대투쟁의 결여, 실용주의적이며 종교적인 미국인의 특성에 대립된 사회주의의 교조적이며 비 종교적인 경향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주로 미국사회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고찰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청교도 윤리관 여부에 지배되는 상향적 사회 이동성

사회주의는 사회신분에 있어 동질성의 계급의식을 갖는 노동자들의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런 계급의식은 주로 공동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을 갖는 동질성의 그룹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계급간 사회신분이 뚜렷하고 상향적 사회이동성(upward soci-al mobility)이 실제적으로 매우 제한된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인종과 문화적으로 다원화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신분적 상향 이동의 정도가 크고, 사회계급간 구별이 희미하며 상향적 신분이동의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 계급의식은 전반적으로 형성되기가 힘들다.

19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기간 동안에 대기업가들의 무자비한 기업 팽창과 막대한 이윤착취는 미국의 전통적 개인주의와 기회균등의 가능성을 위협하였다. 이로 인한 사회계층간 빈부의 격차와 소득의 불균형은 노동자 계층의 주된 불만이 되었다. 미국기업가들의 출신성분을 분석한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미국기업가들은 WASP, 즉 미국 태생의 백인, 앵글로-색슨의 혈통, 개신교의 종교를 가지고, 일찌기 도시환경에 적응한 가문의 후손들이었다. 가난한 가정출신의 사람들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주도의 기업풍토와 산업화 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국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자 신분에서 중산층 이상의 신분으로의 이전이 용이하지는 않았지만, 직업적 지위향상과 재산증식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만족을 누릴수 있었다. 즉, 미국인들은 미국의 민간전승 신화에서 보여주는 '누더기 생활에서 거부로(rages-to-riches)'의 신분이동은 힘들었으나 '누더기로부터 체면적 사회적 지위(rags-to-respectability)'를 경험하였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미국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후에 미국의 강철왕이 된 Andrew Carnegie와 같은 입지전적 인물들의 예에서 기회의 나라, 사회적 입지를 세우는 데 장애가 거의 없는 나라 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이나 아시아로 부터 대량의 이민자의 유입은 이런 사실을 입증해 주고있다. 이민자들의 성공의 승배, 부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분투가 '미국의 꿈(American Dream)', 즉 자수성가의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근면, 성실, 절약의 청교도 윤리관에 무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인으로 하여금 집단적 행동에 의한 특정신분의 타도나 사회제도를 변혁시키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안에서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한 성취를 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런 사상이 산업화의 폐단에 대한 계급투쟁적 과격주의 사상을 둔화시키는 기여를 하였다.

Ⅲ. 인종, 문화적 다양성으로인한 무계급성

다양한 인종과 상이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 형성된 미국사회의 구조는 결속력있는 노동운동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미국 노동자들은 산업사회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였고, 다른 이민 그룹들은 그들 조국으로부터 가져온 문화적 전통과 근로가치관을 따름으로써,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견지를 각각 유지하였다. 이민자들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제도를 새로이 정착한 낯설고 적대적이기까지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더우기 이민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숙련공으로 주위 환경과 가문의 배경이 없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산업체에 고용된 반면, 미국 태생의 노동자들은 비교적 숙련된 기술과 용이한 직업정보의 획득으로 좀더 안전하고 대우가 좋은 산업체에서 사무직원이나, 십장 혹은 감독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인종, 문화적 다양성과 직업상의 이질감은 하나의 사회계급으로 결속할 수 있는 단결력을 저해하였고, 따라서 동일부류의 계급의식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운동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에 참가하기 보다는 기존사회의 테두리안에서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더욱 노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Ⅳ. 자유, 평등주의적인 정치전통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John Locke의 자연법사상, 역사발전의 진보와 낙관주의, 경제나 정치(polity)에 있어 자기본위의 개인주의로 특징되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과 원칙'을 대변하는 미국 정치문화의 진보적 전통에 기인한다. Alexis de Tocqueville과 Louis Hartz는 각각 그들의 저서 'Democracy in America'와 'The Liberal Traditon in America'에서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봉건제도, 세습적 귀족, 억압적인 국가 기관이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탄생한' 신흥국가로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유지한 국가로 보았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헌법은 또한 민주, 자유, 평등, 개인의 행복추구와 같은 가치관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경직되고 엄격한 사회 계급구조가 형성, 발달하지 못하였고, 사회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파적 이데올로기나 좌파적 혁명세력이 심각하게 대립하지 않았다. 이런 미국 특유의 경험으로해서 미국인들은 대중의 집단화에 근거한 사회주의 전통보다는 보수와 진보적 전통을 함께 포용하는 중산층 위주의 정책을 옹호하였다.

미국에서의 세습귀족의 부재는 서부 개척시대 프론티어의 개념과 직결된다. 즉, 광활한 미개척지와 풍부한 천연자원은 미국사회의 강력한 사회·지리적인 이동성을 촉진시켜 '부와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Frederick J. Turner는 그의 저서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에서 프론티어는 미국에서 점증하는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최하층의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터전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개인주의적, 자유·평등주의적 정치전통을 가진 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뿌리내리기는 힘들다.

Ⅴ. 정치사와 정치제도의 특이성

미국의 정치사와 정치제도 또한 사회주의의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럽에서는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천천히 그리고 뒤늦게 부여되었으므로 노동자들은 일차적으로 그들 자신을 산업노동자로, 이차적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자로 인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고,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산업혁명에 앞서서 이루어졌다. 남성투표권의 인정과 노동조합의 결성은 정치적 사회주의의 발생 이전에 성취되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의 결과로 투표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까지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게 이미 양당제로 정착한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에서 그들의 정서와 취향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였다. 기존 정당의 가입과 충성은 독립적인 노동자 계층의 정책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두개의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당 이나 사회당을 단지 제3당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의 정치제도는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극우나 극좌 성향의 정파의 제도화와 같은 주된 정치적 변혁을 겪지 않았다. 미국의 정당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전되었을 다양한 그룹과 정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에서는 선거후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그 본래의 정치적 아이덴 정당의 그 본래의 정치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연합정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선거전에 연합하여 기존의 두 정당중 한 정당이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또한 내각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1인의 대통령의 선거에 촛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중심의 정치제도는 내각 책임제와는 달리 여러 당의 연합정부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선거제도는 각 정파들로 하여금 공화당이나 혹은 민주당의 이름하에 대통령 지명을 두고 연합을 형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 정치사에서 인민당, 혁신당, 노동당이나 사회당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같이 제3당의 후보는 항상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며, 대부분의 잠재적인 제3당 지지 유권자들도 결국은 기존의 두 정당중에서 덜 해로운 정당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더우기 소선거구제와 함께 양당 선거제는 제3당의 등장을 억제하였고, 그 결과 독립적인 노동자 계층의 정당출현을 저지하였다.

Ⅵ. 진보적 개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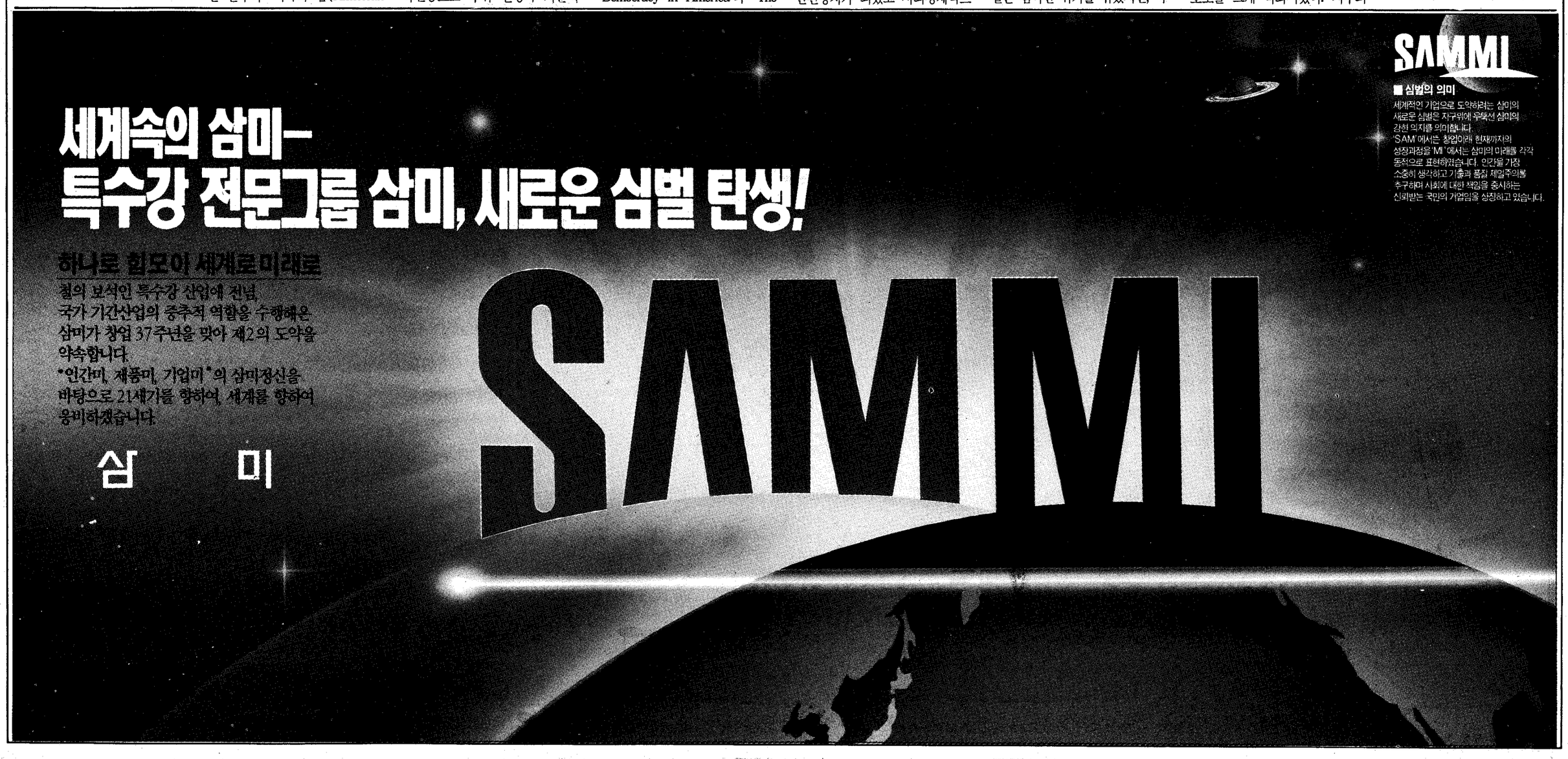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치에서 좌파적 진보주의의 강력한 대두에 기인한다. 이것은 정치, 사회, 경제등 다방면에 걸친 모순과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시적절한 개혁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자본주의에 가장 심각한 도전세력을 둔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혁신주의 (1900-1917)와 뉴딜시기(1930년대)에 미국의 진보적 좌파세력은 시정과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권의 확대, 법적 차별의 금지, 공공교육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의 확충, 노동조합의 활동보장등 많은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런 진보적 개혁은 밑으로부터의 혁명과 과격한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피하고 급진적 노동조합이나 정치적 사회주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조처였다.

뉴딜개혁은 특히 노동당이나 사회당의 즉각적인 당면 목표를 실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의 호소를 크게 약화시켰다. 지주회사법, 트러스트와 독점규제법, 증권시장의 투기억제, 부의 편중현상을 막기위한 누진적 세제개혁, 실업보험과 퇴직자 연금법등의 사회보장제도, 공공 취호사업을 통한 실업자나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안정,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후원, 생활능력이 없는 모·자녀에 대한 연방지원, 맹인과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조등 일련의 혁신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치유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이런 뉴딜개혁은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 상당한 지지기반을 획득하였던 Huey P. Long(루이지애나 주지사로 부유한 사람들의 과잉재산을 몰수함으로써 과격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함), Charles E.Coughlin(미시간주 카톨릭 신부로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들의 경제적 향상과 사회정의 운동을 주장함), Francis E. Townsend(캘리포니아주 외과의사로 60세이상의 퇴직 노인들에게 재활연금을 지불할것을 주장함)와 같은 급진적이고 반 자본주의적 성향의 운동을 크게 무력화시켜 놓았다.

사회주의는 기본산업의 국유화, 사회·경제 정책에서의 국가통제의 강화, 부의 균등한 분배, 철저한 복지국가의 실현등을 이루려는 경제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사회주의의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 어떤 사회도 위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경제제도를 갖고있지 않다. 이러한 이상모델을 기준치로 보았을때 미국은 분명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실패는 정도와 정의의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하나의 뚜렷한 정치세력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미국사회의 정치력과 정신적 풍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사회주의 운동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채무자 금고법과 모반법을 폐지하였고, 선거권을 확대하였고, 어떤 특정 계층이 그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를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는 권리(특히 노동삼권의 보장)를 확보하였다. 더우기 실업수당, 연금제도, 최저임금제, 주당 최고 35-40시간 노동시간제, 아동노동의 폐지, 집단 의료보험제등 다양한 개혁조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바로 급진적 좌파세력이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은 미국의 사회구조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는데는 실패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면에 있어 미국사회를 개혁하는데 기여하였다. 바로 이러한 개혁이 미국사회를 안정되고 질서있는 사회로 만든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손 영 호
〈청주대 교수·역사학〉

◇지금까지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젖은 대량의 이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사진은 주미한국대사관앞 교포들)

자유·평등주의적 가치관의 계급의식 형성 저해
사회주의 발생 이전 노동조합 결성과 남성투표권 인정해
위로부터의 좌파적 혁신 정책, 반자본세력 둔화시켜